

가을철 캠핑...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3년간 캠핑용품 안전사고 369건 발생

부탄가스 사고 최다... “안전수칙 숙지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에서 차박이나 캠핑 등을 즐기는 여행객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철에는 화재, 일산화탄소 중독, 부탄가스 폭발 등 캠핑용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36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캠핑용품 사고 품목별로 보면 부탄가스 관련 사고(81건·20.5%)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해먹 관련 사고(50건·12.6%), 불꽃놀이 제품(34건·8.6%), 텐트(30건·7.6%) 등이 뒤따랐다.

사고에 따른 피해 증상으로는 화상(201건·50.8%)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 피부 및 피하 조직 손상(102건·25.8%), 뇌진탕 및 타박상(27건·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밀폐된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난방 기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캠핑장의 경우 안전 요원이나 안전 규칙 등이 없고, 개개인의 자술에 맡겨져 운영되는 여건상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강원 횡성군의 한 캠핑장에서는 캠핑을 즐기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텐트 안에서 화로와 숯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고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4월 충남 당진의 한 해수욕장에서도 캠핑을 하던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사망했다. 발견 당시 텐트는 밀폐 상태였으며 부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 기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여행을 위해 캠핑 장비를 구비했다는 서모씨(29)는 “요즘 캠핑이 유행이다 보니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아 인터넷으로 장비를 구매했다”며 “캠핑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해왔다. 관련 안전수칙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을 떠나기 전 개인이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장비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내부에 숯불 등을 피우는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가

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질식이나 화재 위험이 큰 가스·전기 난로보다는 침낭이나 핫팩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부탄가스를 사용할 때는 삼발이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 쓴 부탄 캔은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 화기 주변 멀리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며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캠핑 사고를 막기 위해 이용객 모두가 수칙을 숙지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며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캠핑 사고를 막기 위해 이용객 모두가 수칙을 숙지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며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캠핑 사고를 막기 위해 이용객 모두가 수칙을 숙지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며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캠핑 사고를 막기 위해 이용객 모두가 수칙을 숙지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며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캠핑 사고를 막기 위해 이용객 모두가 수칙을 숙지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예술중학교 입학설명회

지난 25일 오전 광주예술중학교 예향홀에서 열린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 계획 등의 안내를 받고 있다.

/김생훈 기자

호남대 ‘2+2 복수학위제’ 취업 결실

주한중국대사관·주광주중국총영사관 최종 합격

호남대학교 중국어학과 학생들이 호남대와 중국 상하이대가 운영하는 ‘2+2 복수학위 제도’를 통해 주한 중국대사관과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에 취업했다.

26일 호남대에 따르면 중국어학과 17학번 박수지씨는 최근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주한중국대사관에 최종 합격해 비자 담당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16학번 리신위, 안나윤씨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에 취업했다. 16학번 윤자영씨도 주한 중국대사의 추천과 공식시험을 거쳐 중국 화동사범대학 국제한어교육 석사과정 중국국가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윤씨는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 무료, 졸업까지 매월 생활비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호남대 중국어과에서 4학기(2년), 상하이대 중국어과에서 4학기(2년)를 다니면 두 대학에서 동시에 졸업장을 받는 ‘2+2 복수학위제도’를 활용해 취업하고 중국국가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호남대와 상하이대는 지난 2018년부터 ‘2+2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남대 중국어학과 이광혁 학과장은 “팬데믹 장기화로 취업 문이 더욱 좁아진 상황에서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복수학위를 이수해 실력을 인정받은 학생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 성공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나라 기자

동강대, 육군 RNTC 유치 추진

육본 현지실사 진행

동강대학교가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로 육군 육군 RNTC(부사관 학군단) 유치에 나섰다.

26일 동강대에 따르면 군사학과는 최근 육군본부로부터 RNTC 운영대학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RNTC는 설치대학의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을 1학년 1학기 때 선발, 3학기 동안 군사교육 후 임관시키며 임관 후에는 장기복무 간부로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동강대는 지난 7월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RNTC 유치를 신청,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RNTC가 최종 확정될 경우 2022학

년도부터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로 육군 부사관 학군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군사학과 조동권 학과장은 “동강대 군사학과는 2021년 졸업생 90% 이상이 직업군인의 꿈을 이뤘다”며 “RNTC를 유치할 경우 전국 최고의 직업군인 요람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 군사학과는 지난 2011년 개설 후 2014년과 2016년, 2018년, 2020년 육군본부 전국 최우수 군사학과로 평가받았다.

또 2019~2020년 2년 연속 육군본부 인재 선발 최우수 군사학과로 선정돼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감사장도 받았다. 군사학과는 2022학년도 수시 1차 모집에서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장성군 공무원 숨져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께 장성군 못재터널 인근 야산에서 장성군 간부 공무원 A씨가 숨져있는 것을 수색에 나선 경찰 등이 발견했다.

A씨는 이날 삶에 비관적인 통화 내용을 마지막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오후 7시 7분께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산산 주변에서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A씨는 직무 중 취득한 전임 근무지 내 개발정보를 이용해 본인, 가족,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성=전일용 기자

전남 학교 달라진다...창의적 공간 재탄생

노후시설 개선 화순 천태초 등 17개교 현장 공개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 사업 성과를 공개한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기존의 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적 요구를 담아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드는 교육시설사업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 되는 교실, 다 품은 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 83교의 학교 공간혁신 영역

단위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2021 학교 공간혁신 공개의 날’에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추진한 17개 학교의 사업성과와 현장을 공개한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학교는 화순 천태초등학교로 오는 29일 ‘하늘별’ 아이들의 생각과 꿈이 담긴 도서관 프로젝트 결과를 선보인다. 천태초는 4곳의 공간에 테마별 하나의 꿈을 담은 도서관을 완성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교직원의 교육

적 견해, 건축전문가의 전문지식이 더해져 의미 있는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천태초를 비롯한 이번 학교 공간혁신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참여 설계와 협의체를 통한 민주적 공간 설계에 있다. 기존의 시설 사업자 주도가 아닌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사용자 주도 설계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공간을 만들었다. ‘자신들이 만든 공간’인 만큼 학생들이 스스로 관리·활용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10월에는 학다리중앙초(6일), 순천남

산중(8일), 목포서부초(8일·온라인), 순천연향중(15일), 순천남초, 장성 삼서초(27일)가 공개의 날을 진행한다.

11월에는 순천청양고, 영광 대마초(3일), 문향고, 도곡초(4일), 구례동중, 군동초(17일), 강진 덕수학교, 빛가람중(30일)이 공개의 날을 갖는다. 12월에는 목포산정초(15일), 나주 다야유치원(16일·온라인)이 학교를 공개한다.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에도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40평(전용) 2억 5천(용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 5천(용3억)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 (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투자확신/강력추천! 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 월수익 750만 ◆ 연수익 9천만 ◆ 매매 13억 (용6억 5천) ▶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지정유, 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 010-6670-9800	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소터디 광주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 서구 동천동(아파트)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5천 (10/6) 서구 농성동(근린주택)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4억5천 (10/20) 동구 계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10/20)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8천9백 (10/29) 전남 화순군 백야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기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향통면 (공정)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 2억7천 -> 최저가 7천 (10/12) 곡성군 곡성읍(숙박시설) ▶ 감정가 1억 -> 최저가 7억4천 (10/27) 시외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 인천 부평구 (근린시설) ▶ 감정가 38억 9천 -> 최저가 19억 (10/19) 062-382-5500